

“‘50조+α’ 민간투자 실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목표”

정부 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정부가 이차전지 민간투자를 50조원 이상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에 공동 대응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과 소재 공급망 확보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 이차전지 혁신 전략 발표 무보, 수은 등 5년간 3조 대출·보증 ‘핵심광물 확보 방안’ 연내 마련

정부는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 미국 IRA 등 공급망 위기에 개별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그간 우리 기업들이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왔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니·호주·미국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IRA로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반포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차전지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배터리 업계의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으며, 원활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 핵심광물 지도 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확보 관련 전단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의 국내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해 2030년까지 R&D 19조5000억 원, 시설투자 30조5000억원 등 총 50조 원 이상의 민간 국내투자를 실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연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출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2%포인트 상향해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첨단산업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3년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입지·인프라·세제 등 종합 지원 받는다.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정부 1조원, 민간 19.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고도화해 1회 충전 주행거리

800km를 달성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1곳 이상 선정 인재육성 민관 협력… 1.6만명 양성 R&D 혁신 펀드 운영규모 확대 검토

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을 양성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의 R&D 등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 펀드’는 당초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나, 6개월 만에 25%가 이미 소진되고, 7건의 심사도 추가 진행 중 일정도 많은 수요가 있어 펀드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민·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원팀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전자 창립 53주년 기념식

“한계없는 도전·혁신으로 새롭게 성장”

계획 축소… 이태원 참사 영향
이재용 회장 별도 메시지 없어

삼성전자가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며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창립 기념일을 조용히 보냈다.

삼성전자는 11월 1일 수원 디지털 시티에서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1969년 1월 13일에 처음 세워졌지만, 삼성 반도체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1일을 창립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이지만, 주요 경영진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영향이다. 당초 계획했던 축하 공연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행사를 시작해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회장 메시지도 따로 나오지 않았다. 당초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취임사를 따로 내지 않은 대신, 창립 기념일에 임직원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



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이태원 참사 추모 조기자 게양돼 있다.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 부회장은 “새로운 기회 영역인 AI, IoT, 로봇, 메타버스 등에서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 성장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자”며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 혁신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자”면서 “선구적인 준법정신과 문화가 삼성전자의 기본 가치로 자리잡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0월 31일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등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내 계시판에 애도 메시지를 공유한 바 있다. 희생자와 가족들에 위로를 전하며 임직원에게 국가애도 기간 희생자 추모를 함께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대표이사인 한종희 부회장이 창립기념사를 발표했다. 어려울 때일 수록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도전 의지로 새로 변신하자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한계 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고객 중심으로 핵심 경쟁력을 재정의하며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소통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김재웅 기자 juk@

이복현 “금융사, 유동성 위기기업 도와야”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점검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자금지원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얘기다. 다만,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는 등 국내 자금시장 경색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감도 상존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은행 등 대형 금융사 등이 단기 금융상품 자산운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내내외 리스크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인 만큼 금융회사들도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